



## 항강, 조상지장군기념관 찾아 영웅들을 추모

# 항일영웅들의 불멸의 공훈을 기리고 동북항일련군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해야

청명절인 4월 5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조상지장군기념관을 찾아 참배하고 영웅들을 추모했으며 항일영웅들의 불멸의 위훈을 되새기면서 민족독립과 인민해방, 국가의 부강을 위해 영웅하게 희생된 혁명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조상지장군기념관은 장춘 반야사에 세워졌다. 장군이 희생된 후 사찰 승려들은 민족의 대의를 품고 일제와 위만주군에 의해 빼앗긴 영웅의 두개골을 되찾아 고할 안에 묻는 것으로 영웅의 충절을 보존했다. 조상지 장군의 두개골 발굴 장소에서 황강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꽃다발을 진정하면서 열사들을 추모하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상지 장군은 동북항일련군 장병들을 이끌

고 백산흑수(白山黑水)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에도 굴하지 않았는바 그 굳건한 강철의결은 더없이 존경할 만하다. 혁명렬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영원히 영웅들을 추모해야 한다. 동북항일련군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양정우, 조상지 등 혁명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당원 간부들이 그들로부터 분발의 힘을 얻고 굳건한 신념과 신념을 다지며 의지를 모으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혁명선배들이 개척한 위대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려정에서 다시 위풍을 떨치며 더 큰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왕자련이 행사에 참석했다. / 길림일보



▲ 4월 5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조상지장군기념관을 참배하고 영웅들을 추모하면서 항일영웅들의 불멸의 위훈을 기렸으며 민족독립과 인민해방, 국가의 부강을 위해 영웅하게 희생된 혁명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 길림일보

## 장백산 관광 4 월말까지 입장권 무료!

최근 장백산풍경구는 공식 채널을 통해 4월 30일까지 전세계 관광객들을 상대로 입장권 무료 혜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의 장백산은 겨울철과 봄철이 교차하는 시기로 눈이 녹아내리고 봄해살이 부드러워 고봉기를 피해 관광하기 좋은 시즌이다.

\* 장백산 북쪽풍경구는 개발이 가장 일찍 이루어져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과 식사가 편리하며 불리가 풍부하다. 다만 전지를 감상할 때 일부 시야가 산봉우리에 가려질 수 있다.

\* 장백산 서쪽풍경구는 전지를 보다 가까이에서 수평으로 조망할 수 있다. 화산지형이 웅장하고 전형적이며 시야가 탁 트여 사진촬영에 최적이다. 다만 1,442개 계단을 올라 가야 한다.

장백산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줄길거리와 불거리의 풍부함을 중시한다면 북쪽풍경구를 추천하고 려정에 체감함과 도전성을 더하고 싶다면 서쪽풍경구를 추천한다.

**교통:** 장백산고속철도역은 북쪽풍경구에 더 가깝고 장백산공항은 서쪽풍경구에 더 가깝다. / 장백산뉴스

**입장권 면제 범위:** 장백산 북쪽, 서쪽 풍경구.(풍경구내 친환경 버스, 전지주봉 교통 등 2차 소비 항목은 제외.) 출발전 '장백산' 위탁 공식계정이나 공식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실명예약을 하고 할인 결합 상품권을 선택해 주문한 후 풍경구에 도착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장백산 북쪽, 서쪽 풍경구, 어떻게 선택할가**

## 징집 마감! 연변 500 곳 인기방문지 확보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 관광공에서 주최한 2026년 제5회 '가장 연변다운 곳 발견' 인기 명소 선정 활동의 인기방문지 징집 단계가 3월 31일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 주 각 현(시)에서 보내온 10대 유형의 방문지 500 곳이 접수되었으며 네티즌 추천 및 자체 추천한 많은 인기방문지가 선정되었다.

연변주 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 및 관광공에서 주최한 2026년 제5회 '가장 연변다운 곳 발견' 인기 명소 선정 활동의 인기방문지 징집 단계가 3월 31일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 주 각 현(시)에서 보내온 10대 유형의 방문지 500 곳이 접수되었으며 네티즌 추천 및 자체 추천한 많은 인기방문지가 선정되었다.

이중에는 가장 핫한 촬영 명소인 중국조선족민속원의 조선족 전통 활동, 가장 마음을 힐링시키는 연길시 환산민박, 가장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대박집(국제무역청사점), 가장 차별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가장 문화적 느낌을 주는 연길공룡박물관, 가장 화려한 빛을 자랑하는 연길시 부

르하통하(천지대교) 석양, 가장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훈춘시 대황구 매력계곡생태풍경구, 가장 활기찬 바거리를 자랑하는 돈화시 호반민요바베큐, 가장 트렌디한 돈화발해각 메타버스대공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변경 도시 훈춘시 권하통상구 등이 포함된다.

올해 선정 활동은 전면 승격되어 현재 가장 유행하는 '정서가치'를 정밀하게 포착하고 '리듬이 느긋하고 분위기가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정위에 부합되며 '연길식 생활방식'이라는 브랜드와 깊이 융합되어 '연변식 삶'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순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 연변라지오 TV 넷

## 유가 또 오른다!

4월 7일 24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조정된다. 이번 유가 조정은 10개 근무일 통계 주기 가운데 지금까지 이미 90% 진행되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원유 변화율은 2.6%에 도달했으며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톤당 225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승폭에 따르면 4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0.17~0.2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길림일보

2026년油价调整日历			
1월 6일	星期二	1월 20일	星期二
2월 3일	星期二	2월 24일	星期二
3월 9일	星期一	3월 23일	星期一
4월 7일	星期二	4월 21일	星期二
5월 8일	星期五	5월 21일	星期四
6월 4일	星期四	6월 18일	星期四
7월 3일	星期五	7월 17일	星期五
7월 31일	星期五	8월 14일	星期五
8월 28일	星期五	9월 11일	星期五
9월 24일	星期四	10월 15일	星期四
10월 29일	星期四	11월 12일	星期四
11월 26일	星期四	12월 10일	星期四
12월 24일	星期四		

## 길림성 여러 지역, '청명절 영웅렬사 추모' 주제 활동 전개

청명절 기간 길림성 여러 지역에서는 '청명절 영웅렬사 추모' 주제 활동을 전개, 장엄한 의식으로 선열들을 추모하고 려사를 명기했으며 추모 과정에 홍색유전자를 전송하고 애국정서를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겼다.

4월 3일 오전, 동북합작사지련관 앞 광장은 장엄하고 엄숙했다. '청명·추모와 전송'을 주제로 한 위만항공박물관 청명절 주제 기념행사가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장춘시 근 천명의 사회가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전영렬들을 추모하고 조난포도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추모와 명기 속에서 강국의 뜻을 다졌다.

9시, 장엄한 국가 속에서 행사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숙연히 서서 목례를 한 후 묵념으로 경의를 표했다. 소리 없는 추모 속에 영렬들에 대한 경양과 추모의 정이 흘러넘쳤다.

위만항공박물관의 중요한 구성부인 동북합작사지련관은 '간고한 14년 - 동북인민 항전사실 진렬', '중국침략 일본군 제 100 부대 세균전 죄중 진렬', '천지영웅기상 천추에 길이길이 - 동북 항전영렬과 영웅군체 추모 진렬' 등 3대 주제 전시회로 구성되었다. 이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국주의교양시범기지이자 길림성의 유명한

홍색관광지이다. 행사장에서 위만항공박물관 애국주의강연단은 항전영렬들의 홍색이야기를 격정높이 들려주었는데 항일민족 영웅 양정우, 조일만의 사적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장춘시남관구동장소학교, 길림교통직업기술학원 자동차공정학원의 학생들은 각기 다채로운 홍색주제 전시공연을 준비했다. 푹푹하지만 확고한 목소리, 진지하고 깊이있는 공연은 영렬에 대한 새시대 청년과 소년아동들의 숭경의 정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회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선열들의 영웅적 기개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장춘시 관성구 신광가두 황하로복사회구역당위 서기 공경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렵게 얻은 이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길림농업대학 맑스주의학원공청당위위원회 서기 리석은 "오늘의 활동은 책 속의 이론 지식과 생생한 혁명사적을 긴밀히 결합시켜 우리가 선열들을 추모하는 과정에 리성과 신앙을 확고히 하고 사명과 책임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선열들을 추모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사상정지수업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모 활동은 료원시에서도 거행되었다. 4월 3일, 동북합작사지련관광부묘지련관 앞의 송백은 숙연했고 분위기는 장중하였다. '희생광부들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전송하자'는 내용의 청명절 주제 추모 행사가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전 시 중학교 학생 대표, 기관단위 대표들이 모여 장중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일본침략자들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광부들을 깊이 추모하고 애국주의정신을 전송, 고양하였으며 고난의 려사에서 분발전진의 힘을 얻었다.

9시경, 의식이 시작되자 낮고 애절한 애도곡이 천천히 연주되었고 전체 인원이 가지런히 대렬을 지어 엄숙한 표정으로 희생광부기념비를 향해 1분 동안 숙연히 묵념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현장에서 전체 인원은 고개를 숙이고 조난당한 광부에 대한 끝없는 애도를 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 고난의 려사를 명기했다.

목념이 끝나자 학생 대표와 기관단위 대표들이 손에 하얀 국화를 들고 천천히 기념비로 걸어가 정중히 헌화했다. 한송이 또 한송이 국화꽃은 깊은 추모의 정을 기탁했고 층층이 놓인 꽃다발은 붉디붉은 초심을 담아 추모의 정을 표현했다.

성묘식이 끝나 후 지련관 해설원

의 인솔하에 행사에 참가한 군중들은 질서있게 전시관에 들어섰다. 동북이 함락된 후 일본침략자들은 료원에서 '사람으로 석탄을 바꾸는' 잔혹한 정책을 추진하여 천만톤의 석탄을 약탈한 동시에 수만명의 광부들을 살해하여 충격적인 '만인갱'을 남겼는데 이 피눈물의 려사는 민족 고난의 심각한 축소판이기도 하다. 지련관에서는 200여점의 려사사진, 70여점의 진귀한 문물과 환영영상(幻影成像), 모래판시연(沙盘演示) 등 방식을 결부하여 당시 광부들의 비참한 상황과 불굴의 항쟁을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일본식민통치의 잔혹함과 암흑상을 진실하게 폭로하였다.

해설자의 해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뼈에 사무치는 고난의 려사를 되새기게 했고 광부들이 압박 속에서도 굳게 뭉치고 고난 속에서도 굴함없이 항쟁한 정신을 해석했다. 녹이 쓴 채광 도구, 누렇게 색바랜 려사사료, 조난광부의 유골 등 전시품들은 일본침략자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참가자들로 하여금 깊은 정신적 세례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행복한 생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했다.

/ 길림일보

의 인솔하에 행사에 참가한 군중들은 질서있게 전시관에 들어섰다. 동북이 함락된 후 일본침략자들은 료원에서 '사람으로 석탄을 바꾸는' 잔혹한 정책을 추진하여 천만톤의 석탄을 약탈한 동시에 수만명의 광부들을 살해하여 충격적인 '만인갱'을 남겼는데 이 피눈물의 려사는 민족 고난의 심각한 축소판이기도 하다. 지련관에서는 200여점의 려사사진, 70여점의 진귀한 문물과 환영영상(幻影成像), 모래판시연(沙盘演示) 등 방식을 결부하여 당시 광부들의 비참한 상황과 불굴의 항쟁을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일본식민통치의 잔혹함과 암흑상을 진실하게 폭로하였다.

해설자의 해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뼈에 사무치는 고난의 려사를 되새기게 했고 광부들이 압박 속에서도 굳게 뭉치고 고난 속에서도 굴함없이 항쟁한 정신을 해석했다. 녹이 쓴 채광 도구, 누렇게 색바랜 려사사료, 조난광부의 유골 등 전시품들은 일본침략자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참가자들로 하여금 깊은 정신적 세례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행복한 생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했다.

/ 길림일보



청명절 연휴 기간 길림성의 여러 관광지, 문화 장소들에서는 특색 행사를 출범시켜 문화관광시장을 풍부히 하고 사람들의 관광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장춘 연화도 영화도시의 연에 행사 현장. / 길림일보